

3. 잔인한 하나님? - 알 수 없는 사랑이 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아무리 이방 백성들 이지만 어떻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 할 때,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지만, 과연 이방족속을 쳐서 완전히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서 예수를 믿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성전(聖戰)”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발생한 이슬람과의 전쟁,

성지를 탈환한다는 이름으로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며 벌였던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남미 대륙을 침범한 사람들이 원주민을 죽였던 역사들,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땅을 주셨다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 토착 인디언들을 살해했던 역사들,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와 함께 다른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무시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이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본문의 명령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Good God!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과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며. . .”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간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따르던 전도자 사명자들 역시 목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무조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의가 없는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 사랑한다는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기독교의 사랑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논란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누가 정죄하며 누가 죽일 수 있느냐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리 법의 테두리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또 하나의 살인 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도 분명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사형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명쾌한 해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비유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과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날과는 아주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과부”가 결혼 대상 1순위라는 말도 있는데, 당시에 과부란 오늘날 노숙자와도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힘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과부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 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하지만 냉소적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인 불의한 재판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기 기분대로 판결을 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이 재판관이 과부의 편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대자에게 뇌물을 먹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는 것을 막았을 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여인은 끝까지 재판관을 귀찮게 한 끝에 도움을 얻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과부를 소원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 떼를 쓰며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그 분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아버지인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제 아이들이 있지요. 저는 교회에서 공인입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약속을 해야 합니다. 부족실이 그 기능을 합니다. 모두를 다 만나거나, 모두에게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사무실에 직접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요.

저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왜냐하면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억지로 조르고 졸라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빛만으로도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아들이 요즘 커가면서 아빠 것을 많이 탐을 냅니다. 뭐든지 아빠 것이 좋은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이제 성장하여 아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견스럽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이것이 하늘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교육비, 과외비, 참고서 값을 꼼꼼히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나중에 받기 위해서. . .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행복을 주는 것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줄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부모는 어쩌면 행복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무척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듣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한 가지 끈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 하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런데 이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를 우리들이 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하 12장에서 다윗이 벧세바와 간음한 사실을 고백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신랄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7~9)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어떤 이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입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심판을 보시나요?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는 것이며, 심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울지 몰라도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접하게 되는 구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잔인함이며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인내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은 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해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를 “오래 참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물이 끓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물을 끓는 속도에 영향을 줄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무어라 해도 “불꽃의 강도”일 것입니다. 불이 세면 물이 빨리 끓고 불

이 약하면 물이 천천히 끓습니다.

인내라, “불을 약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줄이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왕과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회계를 담당한 신하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에게 고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신의 소중한 가족까지 잃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마 18:26)하며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탕감해 주고 놓아 보냈습니다.

‘참아 달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빚진 자가 요청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바라봅니다. 그 심판의 시간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제 3자는 결코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를 향한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친족을 직접 수술하는 것이죠. 특히 암을 제거해야 할 경우 동정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므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동정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몸을 칼로

베고 자르고,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처음에는 암 덩어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다른 건강한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거해야겠지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인내는 자비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마 18: 22)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입고 있는지 아니?”라는 반문으로 어찌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탕감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기에게 단지 1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받은 용서가 그렇게 크면 테레사 수녀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는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느끼지 못한 자입니다. 오히려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퍽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참으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불공평 하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사무엘 상 15장에서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 15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온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가장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을 “르비딴”에서 공격했던 것을 시작으로 (출 17장), 신명기 25장에는 히브리인들이 피곤함을 이용하여 낙오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아멜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소위 테러집단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멜렉의 진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향한,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당시 니느웨는 가장 무자비하고 타락한 나라의 대명사인 앓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야 하는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요나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은지라”

그리고 그 결과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려면. . .

우리들이 무엇을 이해하려면 관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누구에게는 잔인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등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중에도 광야에서 불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출애굽 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얽혀지고 고백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손길을 하나도 느끼지 못할 때, 어느 날 우리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개입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전에 "Blood Diamond"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아프리카의 비극을 잘 설명해 줍니다. 서구 사회에 팔려나가는 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이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날 '솔로몬 반디'라는 어부가 반군에게 잡혀갑니다.

수없이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순간에 그는 건강하다는 이유로 다이아몬드 광산에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훔치려다 들키면 그대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일을 하다 100캐럿이 족히 넘는 핑크빛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는 땅에 숨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한 과정 중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반군에 잡혀가 살인 병기로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만나고 인성을 되찾고, 주인공은 서구 사회에 그 비극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무척 잔인합니다. 손을 자르고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눈길은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주人公이 어떻게 아들을 구하게 될 것이며, 저 죽음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지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죽어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주인공이었다면, 그들의 삶과 죽어가는 순간도 한편의 영화요 소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온데간데없으며, 잔인한 하나님이 그들의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맺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소중한 인생과 삶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人公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과정,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는 것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